

# 주 일 예 배

찬 양

영광을 돌리세 / 나는 비록 약하나 / 저 높고 푸른 하늘과 \*

감사·참회기도

기 원 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

공동기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우리의 소중한 노동과 쉼을 위해서

하나님,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은  
**세상을 모든 피조물이 살만한 곳이 되게 돌보는 것입니다.**

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 
**노동과 그 결실의 나눔으로 실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**  
우리의 노동으로 세상이 보다 더 인간다운 곳이 됨을 믿습니다.

**이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 
정당한 보수와 여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**

노동은 우리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하고  
**피조세계를 가꾸고 보호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.**

우리가 날마다 하는 노동을 축복하셔서  
**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는 땅과 물과 하늘이  
당신 생명의 숨결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.**

땀 흘려 노동한 후에 편히 쉬면서  
**삶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.**

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당신 은총을 나눌 동반자이며

**자연은 그 안에서 당신의 창조섭리를  
감상하고 즐기며 관조하는 보금자리임을 느낍니다.**

하지만 이 노동과 쉼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 
**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과 안식의 축복을 누릴 때까지**

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 
**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.**  
**(다같이) 온 세상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 
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**

중보기도/개인기도

찬 양

성가대

찬양 있네 (작사, 곡 Mark Cabaniss 편곡 Joseph M. Martin)

찬양 있네 비오는 소리 속에도 찬양 있네 아득한 기차 소리에도

바다의 파도도 아름다운 찬양 있네 내 맘속에도 찬양 있네

깊은 산골짜기에도 찬양 있네 아름다운 꿈속에도

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찬양 있네 당신 맘속에 찬양 있네

광대한 바다도 주님을 찬양해 모든 만물 주님 찬양

당신의 노래가 온 세상 울리도록 다 함께 찬양 함께 하세

모든 만물 찬양 소리 높여서 너의 마음 문 열고

모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세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세

찬양 있네 예쁜 자장가 속에도 찬양 있네 예쁜 아기 숨결 속에도

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찬양 있네 당신 맘속에 찬양 있네

온 우주 만물 호흡 있는 자 찬양하네 오 아름다운 찬양 있네

오 아름다운 찬양 있네 주님을 찬양

헌 금

봉헌기도

김현주

성서봉독

마가 12:38-44

설 교

**하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좋아하셨을까?**

곽건용

알리는말씀

\* 신앙고백

-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,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.
-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.
-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.
-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.
- (다같이)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.

\* 마침찬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 주일동안 주님 말씀 굳게 새기며

\* 평화의인사

\* 피송·축도

후 주

\* 표에서는 가능하면 일어서 주십시오.

## 식탁의 나눔과 친교

## 알리는 말씀

### 1 예배시간 변경 / 주일학교

오늘부터 주일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됐습니다. 학생들은 11시 15분에 시작하는 제일회중교회 주일학교에 합류하게 됩니다.

### 2 세계성찬주일 / 성찬식

10월 2일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키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. 이날 예배는 제일회중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고 성찬도 함께 나눕니다.

### 3 연속 설교

오늘부터 4주간 **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하는가?** 라는 주제로 다음의 순서로 연속 설교합니다.

- 봉헌(9/11)
- 기도(9/18)
- 찬양(9/25)
- 말씀(10/9)

### 4 예배순서 변경

다음 주일부터 예배순서에 변화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화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.

### 5 성가대 복귀

성가대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. 그 동안 특별찬송 하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.

### 6 OC 독서모임

<데칼로그> 영화를 보고 십계명에 대한 콕 목사님의 글을 읽고 토론하는 OC 독서모임 두 번째 모임이 이번 토요일(17일) 오후 6시에 강병수/현주교우 댁(515 Laguna Canyon Way, Brea)에서 열립니다. 이번에는 “야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”는 계명을 다룬 영화를 보고 토론합니다.

### 7 금요 독서모임 가을학기 안내

금요 독서모임 가을학기는 23일에 시작됩니다. 이번 학기에는 하워드 진의 저서 <미국 민중사>를 읽고 토론합니다.

### 8 교우동정

전신영 교우께서 서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.

### 9 지난주일 통계

출석 성인 27명 학생 3명  
현금 주정현금

합 계 870불

### 10 다음 주 예배 및 봉사담당

인도-정석(9월) 김그레이스(10월)  
봉헌기도-전신영(9/18) 하성애(9/25)  
안내위원-곽영란(9월) 이용오(10월)  
현금위원-이용오/인숙(9월) 황용연/성애(10월)  
식사담당-임준형/명아(9/18) 박찬민/현실(9/25)

2016년 9월 11일

성령강림절 열여덟 번째 주일

# 예배와 친교

☞

“선물 알려줘  
오시지는 마세요  
뜻은 낮으로 오시면 좋잖아요?  
사랑끼리 선물 받았고...”



전수

평생말이라 태배가 뵙주게  
보입니다. 마음이 오가는 것이라  
생각하다면 나쁘랄 것 없지만  
그대 꼭 고맙기만 하기 어려운  
일입니다. 선물과 뇌물이 그리  
멀리 있지 않습니다.

어려운 시점이라  
제 살가림도 쉽지  
않았으나 삶은 이들이  
보낸 선물은 작아도  
마음이 쓰입니다.  
고마워할 일이 뭐가  
있어서... 살기도  
쉽지요.

“좋은 선물  
전수”  
사랑하는데 물건이  
없을 수 없지만, 그게  
마음만 할 수는 없지  
않습니다. 마음은 넘치지 않을  
만큼만 나누어도 나누시자고...

주일예배 오전 11시      주일학교 오전 11시  
목회자(모든 교인)    담임목사(곽건용)  
찬양 전도사/성가대지휘(조양숙)    올겐연주/성가대반주(전혜란)  
주일학교 교사(김원일 윤경혜)  
운영위원(강병수 배영호 윤경혜 임준형 정석 조영건)  
주소: 540 South Commonwealth Ave. LA, CA 90020  
전화 213-559-7635(교회) 818-441-1380(곽목사 휴대전화)  
이메일 kwakgunyong@gmail.com  
홈페이지 www.goodneighborhood.org  
페이스북 www.facebook.com/groups/googneighborhood/

## 향린교회

GOOD NEIGHBORHOOD CHURCH